

信 心과 精誠으로 靑銅文化의 脈을 이어가는 匠人들의 作品
불상·탱화·법종 전시관
전화:02-735-1045 / 팩스:02-735-2344

현대불교

55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080-023-4000

영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보장고문 고은/편집국장 최희희/인쇄인 김구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2월 1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금주의 법구
말의 분노를 막고
말을 삼가라.
(법구경)

법회 안내

- 성통사 (02)336-2052
일부법회 매주 보 오전8시30분
정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
오전11시, 오후2시
영락사 (02)889-7272
정가법회 셋째 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학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둘째, 넷째 일 낮12시
명화법회 매월 1일 낮12시
자도법회 셋째 일 오후4시
신도법회 매주 보 오전8시
대명사금강선원(02)553-4856
장산법회 화 오후6시30분
산중기도 매월 1~3일(음)
참회기도 매월 7일(음)
비타기도 매월 15일(음)
조선선도재일 매월 18일(음)
용흥사 (02)642-2070
철상재일 매월 7일(음)
지경재일 매월 18일(음)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목련불교학원법회 일 오전11시
인천 연산정사(032)873-1059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4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지경법회 매월 18일(음)
제주한미도선원(064)21-4662
어린이법회 일 오전9시30분
중·고등부법회 일 오후2시
청년부법회 매주 수 오후7시
거사법회 매월 첫째, 셋째
목 오후7시
요강법회 수 오전11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월 둘째, 넷째
일 오전10시30분
대전 자량사 (042)283-6421
어린이법회 매주 보 오후3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보 오후6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
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

한국불교재가회의 12일 창립, 지도급인사 결사
불교·사회발전 논의... 대승적 시민운동 전개

“오늘의 불자, 달라져야 한다”는 자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지도급 재가불자들이 ‘새불교 운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불교재가회의’ 창립추진 위원회(위원장 이기영)는 지난 달 23일 오후 3시 다보빌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교 중흥과 대 사회발전을 위해 크게 여운을 수렴하고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결사모임 ‘재가회의’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재가회의는 불교계 원로계 인사들 비롯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2백여명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일 12시 신라호텔 대연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이번에 창립되는 재가회의에는 서문각(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중서(한국교육개발



재가 長老들이 일어섰다 한국불교의 지도급인사들이 신대승불교운동을 전개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학역들은 재가 원로들은 이운종의 경인치가 될 것을 천명했다. 공동대표 5인은 지난 달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고은, 조홍식, 추진위원장 이기영, 서문각, 김중서(왼쪽부터)다.

원 이사장), 고은(현대불교신문 원 이사)가 공동대표로 참여하
는설고문), 이운근박사(금강하
능동 교계 원로 중진인사들이
대거 동참하고 있어 불자들의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조계종·선학원 첫 만남

대책특위, 5개항의 정관 변경 요구

지난해 말 결사상의 문제로
접촉이 무산됐던 조계종 선학
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법
등, 약칭 ‘조계종 특위’)와 재
단법인 선학원(이사장 정일)이
지난달 24일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조계종 특
위’는 선학원에 정관 일부를
변경해 줄것을 요구 △제 1조
명칭에 ‘대한불교 조계종’ △
제 3조 목적에 ‘대한불교 조계

종 중지를 표대하고’ △제 6조
입원선수에 ‘대한불교 조계종
재적승려중에서 대한불교 조계
종 중앙종회에서 추천하고’ △
제 7조 관여재산의 귀속조항
에 법인재산후 전여재산은 ‘대

목어
서울 종각에서 조계사로
향하는 중간지점(현대불교신
문사 입구) 불교조각정원점
앞에 우뚝한 석조 금강역사
(金剛力士)가 서 있다. 그 옆
에 포대화상도 같이 서 있다.

행인들은 가끔, 눈을 부릅
뜨고 한손에 칼을 든 이 금
강역사상 앞에서 걸음을 멈
춘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
은 바짝 다가가서 먼저 보기
도 한다.

“아이거 뭐냐.”
“무슨데, 그불자.”
“재미있게 생겼잖아.”
금강역사나 사천왕상 등
불교의 신상에 대해 전혀 모
르는 이들은 어처럼 관심을
사할 밖에서 불교상들을 만
난 반가움을 글치 못했으리
라.

불교미술이 절에서 예배대
상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그 뜻을 해야한다는
사할 밖에서 불교상들을 만
난 반가움을 글치 못했으리
라.

불교미술이 절에서 예배대
상으로서만 기능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그 뜻을 해야한다는

을 수호하고 중생의 인안을
은밀히 살피는 신장, 비록보
살의 화염으로 알려진 포대
화상처럼 불교를 상징하는
조각이나 공예작품이 환경조
형물과 동등한다면 어떨까.
세인들은 자연스럽게 불교조
형물과 친숙해지고 그러다보
면 문헌중에서 불교의 가르침
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
게 할 수 있는 불법의 향기
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길”이 미술의 해인 줄에 닿
아질 기대를 본다.

거리의 금강역사

보이지만, 절에 자주 다녀 신
장과 친숙한 불자들은 오히
려 무심히 그 모습을 지나친다.
만약 이 신장상이 조계사 근
처가 아닌 일반거리나 빌딩
앞에서 있었다면 불자들은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또한 재가회의는 종단 및 정
치권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외
호, 협력, 건의, 비판의 역할을
담당하여 대승적 시민운동을
전개하는등 불교와 사회전반에
걸쳐 신 대승불교운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운동
은 불교계와 사회가 제 모습을
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
운데 불교계의 지성인들이 모
여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새불교 운동’을 전개하기 위
한 재가회의의 주요사업으로는
△불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대중교육 △불교의 비전을 위한
문화법 연구포럼 △대 사회사업
등이 있으며 각 분야에서 불교
의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합법과 함께 회원들은
문화 예술, 포교 신행, 종교 교
단, 언론 출판, 교육 학술, 정
치 통일, 경제 과학, 환경 영
리, 사회 복지, 국제 평화 등
10개 분야로 나뉘어 독자적인
연구활동을 벌여갈 예정이다.

재가회의는 신명활동 10년이
상이 덕담과 의식, 전문성있는
교계 지도급인사들이 추진위의
추대로 구성된다.

한편 재가회의에는 언론인인
로 김태호(불교방송사장) 공동
(조선일보논설위원)씨, 학계에
신동훈(한양대) 이기남(서울대)
권기홍(경국대)교수, 예술 문화
인으로 남지삼(소설가) 박방준
(중앙관현악단단장)씨, 법조계
김종근(변호사) 박종우(형법연구
원장)사, 신행 포교분야에 함정
삼(한국불교교무원 이사장)법사
등 현재 1백50여명이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신문이 오는 2월부터 교계의 각 종단 또는 사찰
과 공동으로 제작하는 법공양 면을 신설합니다.
신설 법공양 면은 본지의 편집의도에 따라 제작되는 기
존의 지면(주 16면)과는 별도로,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이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자기재량 하에 소재를 선택
하고 본지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
됩니다.

현대불교는 1차로 오는 2월 중에 월 2회, 매월 4면 정도
를 시험제작하고 교계의 호응을 보아 가능한 한 5월부터
매주 4면씩을, 10월부터는 매주 8면까지를 법공양 면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법 공양면 신설

각 종단·사찰 대상 제작 실비로
독자에겐 사실상 증면 효과

법공양 면은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
는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
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
용부담은 제작을 원하는 부수(部數)와 실제 인쇄비 및 우
송료로 한정됩니다.

현대불교가 일반 제작비 부담증가를 무릅쓰고 법공양 면
을 신설하는 뜻은 주 16면 발행만으로는 각 사찰마다 행해
지는 설법을 지상중계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재 8~9면에
게재 중인 「지상법사」를 확대해 달라는 독자의 요구를 고
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공양 면을 이용하시려면 본사 소정양식에 따라 미리
계약을 맺고 이용 횟수 5회 이상, 이용 면수 2개면 이내 이
어야 합니다. 각 종단·사찰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동국대 총장에 송석구교수

25일 이사회서 만장일치 선임

동국대 재단이사회(이사장
복원)는 지난달 25일 타워
호텔에서 제30회 임시이사회를
갖고 제13대 총장에 송석구교
수(55, 철학과)를 선임했다.

(인터뷰 7면)
이사장 복원)를 비롯 박
과·장대·현성남 서준자 총
명수씨 등 이사 11명과 감사장
관상지 이기호 교수가 참석한 기
회에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각
이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총장선
임에 들어가 송석구교수를 이사
장원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 제 13대 총장
선임은 지난 달 15일 교수·직
원회의 선거를 통해 총장추천
후보로 선출된 송석구교수와
조희영교수에 대한 선임요부
10일만에 이루어졌다.

설날연휴 관계로 2월
8일자 휴간합니다

지상법석 직지사 조실 관음스님 8·9면
용주사에 대규모 학교육원 설립 15면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95년도에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생명의 신상품- 어떤것을 선택해도 확실히 만족하십니다

연금이 커지면...

연금이 커지면...
연금이 커지면...
연금이 커지면...

확실히 커진만큼 확실히 만족하십니다.
삼성 그린행복연금보험

- 자급율이 큰목으로 개선된 고액의 연금+장수축하금+배당금까지
- 업계 최초로 장수우대형(장수할수록 많아지는 연금을 종신지급)과 조기지급형(일정기간동안 고액의 생활자금을 지급)중 선택 가능
- 각종 세계혜택 제공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차의 비과세)
- 노후 80세까지 암발병 및 암치료비 보장(특약)
- 개인형 및 부부형 선택 가능



진단에서 입원, 요양, 그리고 생활보장까지-
삼성 홀닥터보험

- 배당금 지급으로 저축가능까지 겸비
- 암진단금+생활자금+입원비+수술비+통원비+요양비+유족보상금
-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 다양한 보험기간(10,20년형/55,60,65,80세형)
- 배우자 및 자녀까지 동시가입 가능

가족사랑 이웃사랑
SAMSUNG
삼성생명